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0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FTA교섭관 김영무 국장(2110-4500), 최진원 과장(2110-5201)

한-인니 CEPA 연내 타결 추진

□ 한-인니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임

○ 한-인니 CEPA는 지난 6월에 발표한 「新통상 로드맵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·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**상생형(win-win) FTA로 추진중**임

- 상품 분야에서는 기존 한-ASEAN FTA에서 제외된 철강, 자동차 및 부품, 석유화학, 전자제품 등 우리 핵심 수출품목 시장접근 개선을 달성하고,

- 서비스·투자 분야 개방 확대,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한-인니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, 한-ASEAN FTA 상품협정('07.6월 발효)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, 중-ASEAN FTA('07.6월 발효) 및 일-인니 EPA('08.7월)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

* 자동차(20%), 자동차부품(10~15%), 석유화학(5~20%), 철강(5~12.5%), 가전(10%) 등

○ 우리가 기체결한 한-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이 인니와 유리한 조건으로 EPA*를 체결하여 인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음

* EPA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경제동반자협정)

- 특히,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니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인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하여 한-인니 CEPA의 조기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음

* (철강) 일본은 일-인니 EPA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도입하여 대인니 수출 철강제품 중 80% 이상이 관세 면제 혜택

* (석유화학) 우리는 한-ASEAN FTA에서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제외되었으나, 일본은 모든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관세를 3~10년내 철폐

* (자동차) 우리와 양허 수준은 유사하나, 일본은 현지 조립공장을 갖추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니 시장 대부분을 점유(日 94.6%, 韓 1.6%)

○ 인니의 경우, 對韓 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* 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보다는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분야 등에 관심이 있었음

* '12년 對인니 수입 157억불 중 116억불(74%)이 천연가스, 유연탄, 원유 등 광산물에 해당

□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니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, 양국 통상장관간 한-인니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음

○ 2011년 5월 공동연구 작업반이 설치되어 10월까지 총 3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, 공동연구 결과 한-인니 CEPA의 체결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음

* 제1차('11.7월, 자카르타), 제2차('11.9월, 서울), 제3차('11.10월, 자카르타)

- 우리측에는 한-ASEAN FTA 양허 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 관세 철폐시 GDP 0.13%, 후생 15억불 증가가 예상되었으며,

- 인니측은 GDP 0.03%, 후생 797만불 증가 예상과 더불어, CEPA 체결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, GDP 4.37%, 후생 106억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

□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한-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연내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

* 제1차('12.7월, 자카르타), 제2차('12.12월, 자카르타), 제3차('13.5월, 부산), 제4차('13.7월, 발리), 제5차('13.9월, 서울)

○ 제1차 및 제2차 협상을 통해서는 협상 대상의 범위, 일정 등을 결정하는 협상운영세칙(TOR; Terms of Reference)에 합의하였으며,

○ 제3차 협상부터 분과별로 협정문에 기반한 논의를 개시하고 상품·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이 진행된 바,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연내 협상 타결의 발판이 마련되었음

참고 : 1. 한-인니 교역·투자 현황

2. 한-인니 CEPA 공동연구 결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(☎ 02-2110-52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한-인니 교역·투자 현황

□ 한-인니 교역

(단위:백만불, (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(1~7월)
수출	4,874 (△3.4)	5,771 (18.4)	7,934 (37.5)	6,000 (△24.4)	8,897 (48.3)	13,563 (52.4)	13,955 (2.9)	6,711 (△15.8)
수입	8,849 (8.1)	9,114 (3.0)	11,320 (24.2)	9,264 (△18.2)	13,986 (51.0)	17,216 (23.1)	15,676 (△8.9)	7,788 (△20.9)
무역수지	△3,975	△3,343	△3,386	△3,264	△5,089	△3,653	△1,721	△1,077
총교역액	13,723	14,885	19,254	15,264	22,883	30,779	29,631	14,499

※ '13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제12위 교역 파트너(수출 9위, 수입 11위)

□ 한-인니 투자

(단위: 천불, ()는 신고건수 / 자료출처: 수출입은행, 산업통상자원부)

구분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(1~6월)	누계
한국의 對인니 투자	128,392 (174)	271,168 (276)	616,687 (294)	670,835 (400)	522,223 (316)	1,792,729 (332)	1,376,087 (448)	1,006,193 (381)	314,400 (200)	<'68~'13.06> 11,179,355 (4,532)
인니의 對한국 투자	25,743 (11)	336 (4)	150 (1)	11,891 (12)	2,133 (12)	752,097 (17)	6,240 (11)	68,270 (9)	280 (3)	<'90~'13.06> 957,375 (118)

※ '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인니는 한국의 제8위 투자대상

□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10대 교역품목 현황('13.1~7월)

(MTI 4단위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)

수출품목	금액(백만불)	비중	수입품목	금액(백만불)	비중
경유	1,301	19.4%	천연가스	2,184	28.0%
휘발유	742	11.1%	유연탄	1,528	19.6%
편직물	380	5.7%	원유	806	10.4%
합성수지	369	5.5%	펄프	302	3.9%
열연강판	259	3.9%	중유	254	3.3%
냉연강판	163	2.4%	천연고무	213	2.7%
합성고무	152	2.3%	동광	206	2.7%
승용차	101	1.5%	직물제의류	114	1.5%
칼라TV	90	1.3%	기타석유제품	111	1.4%
아연도강판	85	1.3%	박류	158	2.0%
소계	3,642	54.3%	소계	5,876	75.5%
전체	6,711	100.0%	전체	7,788	100.0%

참고 2 한-인니 CEPA 공동연구 결과

□ 한-인니 상품교역 관계

○ '01~'10년간 양국간 교역은 약 3배 증가

- '10년 기준 인니는 한국의 제10대 수출국이며, 수출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

- 한국은 일본, 중국, 미국, 싱가포르에 이은 인니의 제5대 수출국

○ 우리는 주로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고 천연가스, 유연탄 등 원자재를 수입

- 對인니 주요 수출품 : 경유, 휘발유, 석유화학제품, 전자제품

- 對인니 주요 수입품 : 천연가스, 유연탄, 목재, 제지, 섬유·의류

□ 한-인니 CEPA의 경제적 효과

○ 한-인니 CEPA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

- 우리측 : 한-ASEAN FTA 양허 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 관세 철폐시 GDP 0.13%, 후생 15억불 증가 예상

- 인니측 : GDP 0.03%, 후생 797만불 증가 예상, CEPA 체결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까지 감안시 GDP 4.37%, 후생 106억불 증가